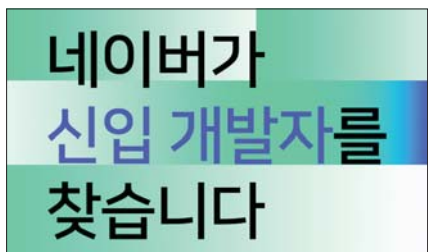


잘나가는 비대면산업... IT업계 “개발자 모십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채용 경쟁 후끈
채용설명회·면접·실기 온라인으로
축하금 5000만원 등 파격 혜택도



네이버 개발자 공개채용 포스터. /네이버



2021 신입 개발자 블라인드 채용 @카카오
카카오 개발자 공개채용 포스터. /카카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이커머스와 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면서 IT 업계가 개발자 채용에 한창이다. 개발자 역량이 서비스로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개발자를 모셔가기 위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4일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네이버를 포함해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워크모바일, 스노우, 네이버웹툰,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18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후 온라인 코딩 테스트와 1차 기술면접, 2차 종합면접을 진행한다. 코로나19상황임을

감안해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세자릿수의 신입 개발자를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입사 예정이다.

네이버는 지원자들에게 입사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 신입개발공채 체크포인트’ 페이지도 개설했다. 올해 채용의 중요한 키워드를 비롯해 개발 문화와 업무 환경, 입사 준비 과정 등 네이버 개발자들의 경험을 제공하며,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면접관과 신입사원이 직접 작성한 답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채에 앞서 네이버는 지난 7월부터 6주 동안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는데 6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네이버는 지난해 200여 명의 개발자를 채용한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올해도 작년 규모로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도 신입 개발자 공채를 진행 중이다. 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했고 라인플러스, 라인비즈플러

스, 라인파이낸셜플러스, 라인스튜디오 등 4개 법인에서 라인 앱을 포함해 커머스, 핀테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를 채용한다. 코딩테스트와, 필기 시험, 면접을 포함한 모든 전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앞서 진행한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는 사전 신청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

카카오도 올해 공채를 통해 세자릿수의 신입 개발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커머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가 동시에 진행하며 지원자는 최대 2지방까지 지원 희망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원서에 학력, 전공,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받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우수한 개발자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스펙이 아닌 능력 검증을 통해 지원자의 개발 역량과 업무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7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았으며 1·2차 온라인 코딩테스트와 두 차례의 면접을 거쳐 11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우수한 개발자를 뽑기 위해 파격 혜택을 내걸기도 한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최근 완료한 200여 명을 뽑는 기술 직군 경력직 공채에서 합격자에게 5000만원의 입사 축하금을 지급했다.

100여 명의 개발자를 모집 중인 11번가는 직원이 추천한 지원자의 입사가 확정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1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는 토스는 입사자에게 전 직장 연봉의 최대 1.5배와 1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공한다. /구서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롤스로이스, ‘뉴 고스트’ 출시
롤스로이스모터카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롤스 로이스 서울 부티크에서 ‘뉴 고스트(New Ghost)’를 선보이고 있다. 뉴 고스트에 탑재된 6.75L 트윈터보 V12엔진은 최고 출력 571마력으로 강력한 주행능력을 발휘한다. 가격은 4억7100만원부터다. /손진영 기자 son@

현대백, 액세서리 사업 미래먹거리로 키운다

한섬, 액세서리 편집스토어 론칭
전담 조직 만들고 유통채널 확대
“5년 내 연 매출 1000억 달성 목표”

‘패션 명가’ 한섬이 액세서리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선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액세서리 전문 편집 스토어 ‘더 한섬 하우스 콜렉티드’를 론칭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첫 쇼룸을 열고, 향후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서 단독매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더 한섬 하우스 콜렉티드’는 타임·마임·시스템·랑방 컬렉션 등 한섬의 13개 자사 패션 브랜드의 주요 액세서리 제품을 한데 모은 액세서리 편집 매장이자, 한 공간에서 타임 슈즈, 랑방 컬렉션 핸드백, 마인 팔찌 등 각 브랜드별 콘셉트와 디자인 등이 적용된 한섬의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

이번 액세서리 전문 편집 스토어 론칭에 대해 한섬 측은 액세서리 사업 강화에 본격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한섬은 브랜드별 의류 제품에 어울리는 스카프, 핸드백 등 일부 액세서리 제품을 자체적으로 선보여왔다.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더 한섬 하우스 콜렉티드 외부 /현대백화점그룹

비중은 3~5% 수준이었다.

한섬은 이를 위해 액세서리 제품 라인업을 대폭 늘린다. 기존 핸드백과 스카프 등 소품류에 그쳤던 제품군을 남녀 슈즈를 중심으로 주얼리, 모자, 마스크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액세서리 제품 수를 지난해보다 30% 늘린 총 1400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액세서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도 확대했다. 기존 타임·마임 등 대표 브랜드를 키워낸 노하우를 접목해 액세서리 디자인과 소재 개발 등을 전담하는 디자인실과 기획실을 신설했고, 여기에 각 브랜드별로 분산됐던 액세서리

제품 기획 업무를 모두 ‘액세서리(잡화) 사업부’로 통합해, 소재 조달과 생산 공정 고도화에도 이미 나선 상태다.

아울러,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액세서리 시장 특성을 고려해 매달 새로운 디자인과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섬은 이를 통해 올해 액세서리 사업 매출 목표를 지난해(170억원) 보다 두 배 늘어난 350억원으로 잡았다. 또한, 내년부터 액세서리 전문 매장과 온라인 채널 확대 및 면세점 진출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연간 매출 규모를 오는 2025년까지 1000억원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카카오,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 데이터센터

안산시 등과 산학협력시설 건립 맞춘
사업비 4000억 투입... 2023년 준공

카카오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리 운영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7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화섭 안산시장, 한양대 김우승 총장, 카카오 여민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함께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내 1만8383㎡ 규모 부지에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을 건설한다. 올 하반기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 토지 임대차 및 입주 계약 완료 및 착공한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해당 데이터센터의 금융자문에는 카카오페이증권이 참여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기 등을 제공하는 통합 관리 시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카카오 데이터센터는 하이퍼스케일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규모다. 카카오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초기 기계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 사용량과 동일하게 상수 사용량을 신경써서 모니터링하고 빗물을 모아 활용하는 등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냉동기, 향온환습기 등 다양한 장치를 설치해 전기 소모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블랙아웃 등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 발전기, UPS를 설치한다. 비상 발전기 작동 시 안정적으로 냉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축냉 조 및 비상 펌프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카카오는 이번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기로 안산시, 한양대와 협력해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안산의 지역상생을 위해 꾸준한 협업을 이어나간다. AI와 빅데이터를 비롯해 4차 산업, 클라우드 비즈니스 중심의 첨단 인프라로 삼는다는 목표다. /구서운 기자

삼성SDS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역량 공유

삼성SDS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현장 적용 사례와 기술 역량을 공유하는 ‘리얼 2020’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인 REAL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삼성SDS는 지난해 ‘리얼 2019’에서 DT 프레임워크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에는 고객의 디지털 수준 진단부터 전략 수립 및 실행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

진방법론까지 포함된 업그레йд 버전을 발표한다.

이어 삼성SDS 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보안 기술 중심의 DT 엔진과 분야별 DT 솔루션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9일에는 ‘디지털 기술 기반 기업 경영 혁신’을 주제로 전자적 자원관리(ERP)-공급망 관리(SCM)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의 혁신 사례가 소개된다. ‘일하

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주제로 업무 자동화(RPA), 화상회의 등 비대면 소통, 3D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협업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례도 공유된다.

10일에는 AI, 클라우드, 보안 기술을 활용한 제조, 금융, 물류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 사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삼성SDS 후원포 대표이사(사장)는 “이번 리얼 2020에서 소개하는 최신 IT 기술 및 산업별 현장 적용 사례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충분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서운 기자